

▶ 내신 기출 문학 비상-하편 ◀

3. 한국 문학의 성격

(3) 춘향전 (16문제)-----1쪽

4. 한국 문학의 역사

(1)

*주몽 신화 (17문제)-----15쪽

*제망매가 (25문제)-----25쪽

*동동 (38문제)-----40쪽

(2)

*이생규장전 (36문제)-----62쪽

*시조 네 편 (46문제)-----85쪽

*속미인곡 (55문제)-----105쪽

*임경업전 (38문제)-----130쪽

(3)

*산돼지 (21문제)-----156쪽

*쉽게 씌어진 시 (60문제)-----173쪽

*태평천하 (37문제)-----198쪽

(4)

*광장 (21문제)-----220쪽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20문제)-----235쪽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6문제)-----245쪽

5. 문학에 관한 태도

*흐르는 북 (22문제)-----250쪽

◆빠른 전체 정답-----266쪽

◆해설-----270쪽

교재 버전: 2021.02.09

“이생규장전” 분석 정리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소설, 전기 소설(傳奇小說)	성격	전기적, 낭만적, 비극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배경: 고려 공민왕 때 • 공간적 배경: 개성
제재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사랑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남.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남. 시를 삽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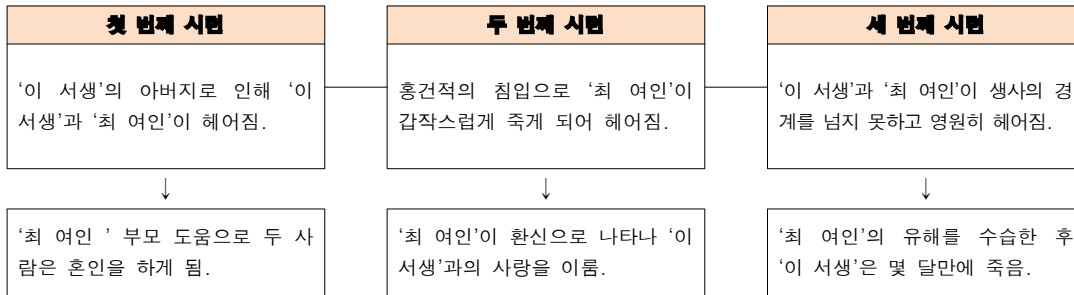
◆전제 구성

발단	‘이 서생’이 ‘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눔.
전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이 서생’의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함.
위기	홍건적의 침입으로 ‘최 여인’이 죽게 됨.
결정	‘이 서생’과 ‘최 여인’의 환신이 재회하여 행복하게 지냄.
결말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영원한 이별을 함.

1. 작품에 나타난 전기 소설의 특징

재자가인(才子佳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서생’은 용모가 준수하며 재주가 뛰어남. ‘최 여인’은 자수와 시문에 능하며 매우 아름답음.
비현실적인 상황과 사건	죽은 ‘최 여인’이 환생하여 ‘이 서생’과의 인연을 이어감.
한문 문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문 문체의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여 서술함. ‘최 여인’이 ‘이 서생’과 작별하며 이별과 죽음의 슬픔을 한시로 표현함.

2. 주인공이 겪는 세 가지 시험과 그 대응



3. ‘최 여인’의 환생이 갖는 의미

- ‘이 서생’과의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임.
-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냄.

4. 삽입된 노래의 기능

정서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독자에게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줌.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함.
서사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줌.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함.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함.

5.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 의식

「이생규장전」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여타 고전 소설과는 달리 비극적 결말을 보여 준다. 이는 작가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사육신의 죽음 이후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냈던 김시습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6.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생사관

작가는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에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을 알 수 있다.

7.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의 공통점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남염부주지」,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웅궁부연록」, 「취유부벽정기」를 전함.

→

작품들의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킴. • 적극적이며,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상을 구현함. • 애민적(愛民的) 왕도 정치 사상이 드러남. •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을 지향함.

“이생규장전” 학습 활동 문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등장인물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시련의 원인	시련의 결과
첫 번째 시련	‘이 서생’의 부모가 집안의 문벌 차이를 이유로 혼인을 반대함.	‘이 서생’이 지방으로 가게 되어 ‘최 여인’과 이별하게 됨.
두 번째 시련	홍건적의 침입으로 온 가족이 흩어지게 됨.	‘최 여인’이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함.
세 번째 시련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 때문에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감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이별하게 되고 ‘이 서생’ 역시 죽음을 맞이함.

↓

‘이 서생’의 특징	‘최 여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여 ‘최 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임. • ‘최 여인’의 혼백과 사랑을 나누고, 이별한 후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함. •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여 ‘최 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임. • ‘최 여인’의 혼백과 사랑을 나누고, 이별한 후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서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 •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의지적 인물임. • ‘이 서생’을 위해 저승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를 사랑함.

2 작가가 이 작품에 ‘최 여인’의 노래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 작품에 삽입된 노래는 ‘최 여인’이 경험한 이전의 사건과 그녀의 처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떠나야만 하는 슬픔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노래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서사적인 사건 전개에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기능을 한다. 작가는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최 여인’의 노래를 삽입했을 것이다

4-(2) 이생규장전

3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를 찾아보고, 작가가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
<p>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 서생'과 함께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남</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이 비현실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높임. •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함. • 세계의 횡포에 맞서는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함.

4 다음 설화와 비교하여, 「이생규장전」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신라 풍속에 매년 중춘(仲春, 음력 2월) 8일에서부터 15일에 이르기까지 도읍의 남녀들이 다투어 흥륜사의 탑을 도는 복회(福會)를 열었다.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낭군(郎君)이 있었는데, 밤늦도록 혼자 쉬지 않고 돌았다. 한 여자도 따라 돌고 있었는데, 현이 드디어 정을 통하여 그 여자를 따라갔다.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내일 성내에 들어가서 해로운 일을 하면, 곧 왕은 반드시 좋은 벼슬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복쪽의 숲속으로 나를 쫓아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지어서 좋은 업보(業寶)를 얻게 해 주신다면, 곧 낭군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성에 들어왔는데, 당할 사람이 없었다. 왕이 영을 내려,

“능히 호랑이를 사로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주겠노라.”

하니, 김현이 대궐에 나아가 아뢰어 말하기를,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단검을 들고 복쪽의 숲으로 들어갔다. 호랑이가 낭자로 변해서 웃으며 말하기를,

“어제의 곡진했던 사연을 오직 낭군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더니,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고 쓰러지니 곧 호랑이었다. 그 후 김현이 벼슬길에 오른 뒤 서쪽 냇가에 절을 짓고, 이름을 '호원사(虎願寺)'라고 했다.

- 작자 미상, 「호원(虎願)」

두 작품은 모두 일상적 세계를 초월한 남녀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전기적 사건 전개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호원」과 달리 「이생규장전」에서는 인물들의 심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인물들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듯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라는 소설 갈래의 특징을 「이생규장전」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생규장전” 읽기 중 질문

1.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으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새 없이 만남 그 자체에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2. '최 여인'이 말한 '세 번의 가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담장을 넘어 사랑을 약속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반대를 뛰어넘어 혼인한 것이며,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여 만남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3. '최 여인'이 부른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최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 서생'에게 이별을 고하며 애끓는 심사를 노래를 통해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흥건적의 침입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남편과 이별했던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과 또다시 찾아온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4.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다시 이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는 '최 여인'이 운명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 세상에 계속 머물면 '이 서생'에게까지 죄과가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詩書)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중략>

[A]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찻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중략>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서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 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메어 울었다. 이 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玉樓春曲)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B] 도적 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혼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돌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서생도 또한 슬픔에 견잡지 못했다. <중략>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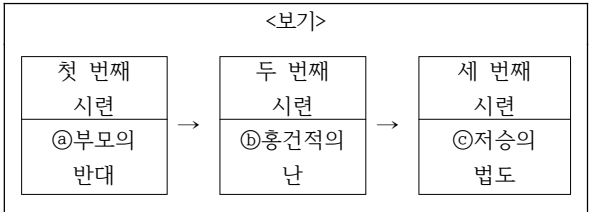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중심 서사 요소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 ㉠는 자유연애를 허락하지 않는 봉건적 관습을 의미한다.
- ㉡ ㉡에서 '최 여인'은 정절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강인한 면모를 드러낸다.

- ㉠ ㉞로 인한 최 여인의 죽음을 ‘환생’이라는 환상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 ㉡ ㉜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이기에 전기적(傳奇的)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 ㉢ ㉝, ㉞, ㉟를 통해 자아와 세계의 치열한 대결이 드러난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A]는 지난 일에 대한 내력이, [B]는 이별을 앞둔 슬픔이 드러난다.
- ㉡ [A], [B] 둘 다 전고(典故)를 활용하여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 [A]에서는 등장인물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만, [B]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 ㉣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B]는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 ㉤ [A]에서 발생한 문제적 상황이 [B]를 통해 해결됨으로써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부각된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B]의 삽입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한 가지씩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정서적 기능	㉠
서사적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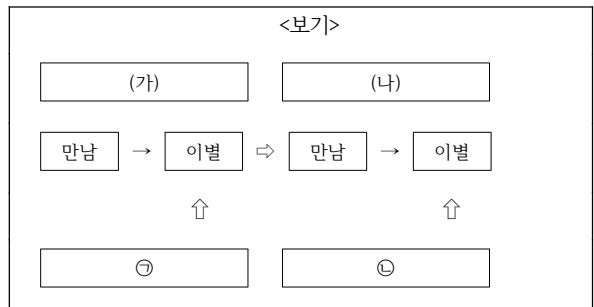
오금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인물의 대화와 삽입된 시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 재자가인(才子佳人)형 인물을 주축으로 전기적인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
-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5. 윗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여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최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정절을 중시하는 유교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
- ㉡ 최랑과 이생은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불태우며, ㉡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가)의 ‘만남’은 (나)와 달리 제도적 장애를 극복하여 이론 결과로, 작가의 진보적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 (나)의 ‘만남’은 (가)와 달리 초월적 존재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나 운명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 ㉤ (가)는 현실적 사건을, (나)는 비현실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나)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맷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낭군과 저와는 삼세의 깊은 인연이 맺혀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뵈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낭군께서 지금도 삼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 이튿날 여인은 이 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五冠山)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란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

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길흉사(吉凶事)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마) 최 여인은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玉樓春曲)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 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 주리
피투성이 그 유혼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라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바)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 중간에 시를 삽입하여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을 드러낸다.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7.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최 여인은 갑작스런 횡액에 흥진비래(興盡悲來)를 깨닫고 있어.
- ㉡ 이 서생은 최 여인을 오매불망(寤寐不忘)하다 죽음을 맞이 하는 지고지순(至高至順)한 인물이야.
- ㉢ 최 여인은 흥건적에게 죽임을 당한 각골통한(刻骨痛恨)의 심정을 이 서생에게 솔직하게 토로하는 적극적인 인물이야.
- ㉣ 이 서생과 최 여인은 뛰어난 용모와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 아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재자가인(才子佳人)형 인물이야.
- ㉤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환생한 최 여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생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지닌 인물이야.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8. 윗글을 바르게 감상한 것은?

- ㉠ 도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최 여인이 언급한 삼세의 인연이 지닌 의미를 해석한다.
- ㉡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부모의 유해를 모아 매장하고 장사를 치르는 행동의 의미를 해석해본다.
- ㉢ 최 여인을 따라 죽음을 맞는 이 서생을 통해 이승과 저승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글쓴이의 생사관을 파악한다.
- ㉣ 최 여인이 환생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은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려는 소설적 장치임을 이해한다.
- ㉤ 두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어긋난 사랑이 초래하는 비극성을 심화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임을 이해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장 너머로 던지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 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는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 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詩書)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백 년을 넘었습니다. 사체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써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붙잡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시조 네 편” 분석 정리

●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가 | 성심문

○ : 중의적 표현 '이제'의 지조를 닮으면서 자신이 '이제'보다 더 큰 지조를 지냈음을 강조함.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호노라' 05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산. '수양 대군(세조)'

주려 주글진들 '재미(採薇)도 호는 것가' [: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았다
고 하며 고사리를 캐어 먹었는데 그 고사리는
주나라의 땅에서 난 것이므로, 확자는 고사리마
저도 먹지 않겠다는 굳은 절의를 보여 줌.

고사리를 캐어 먹음.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祿) 받음.

'비록'에 '푸새엣 거신들 괴(衄)사해 낫드니' 주나라의 '무왕'. '수양 대군(세조)'

[현대어 풀이]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 살아 되겠는가? /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낫는가?

◆핵심 정리

간체	평시조	성격	절의적, 풍자적, 비판적
제재	'백이'와 '숙제'의 고사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의와 지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의법, 설의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냄.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의를 부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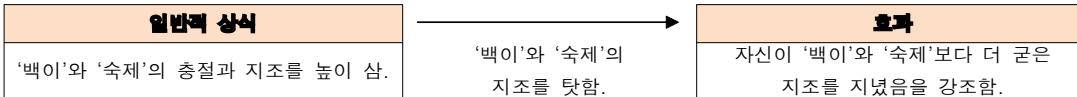
◆전체 구성

	현대어 풀이	구성
초장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백이'와 '숙제'에 대한 한탄
중장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야 되겠는가?	'백이'와 '숙제'의 행위에 대한 질책
종장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낫는가?	굳은 지조와 절개에 대한 다짐

1. 시어의 풍의적 의미

'수양산'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산	'수양 대군(세조)'
'재미'	고사리를 캐어 먹음.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祿)을 받음.
'衄'	주나라의 '무왕'	'수양 대군(세조)'

2. 일반적 상식을 꺾이는 표현의 효과



● 「이화우(梨花雨) 훗뚜릴 제」

나 | 계량

계절의 변화

이화우(梨花雨) 훗뚜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혼 님
 비 오듯 떨어지는 배꽃, 또는 풍비 → 하강적 이미지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 시간의 흐름, 하강적 이미지, 이별의 정서 심화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① 일과 떨어진 공간적 입을 향한 그리운 마음
 - 물리적 거리

② 이별로 인한 임과의 심적인 거리

[현대어 풀이]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때에 울며 (손) 잡고 헤어진 임 /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임도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 천 리 길 (머나먼 곳에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핵심 정리

감체	평시조	성격	감상적, 애상적
제지	이화우, 추풍낙엽, 이별		
주제	임을 그리는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강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이화우', '추풍낙엽')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함. •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어를 사용함. 		

◆전체 구성

	현대어 풀이	구성
초장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때에 울며 (손) 잡고 헤어진 임	봄에 임과 이별함.
중장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임도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가을에 임을 그리워함.
종장	천 리 길 (머나먼 곳에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외로워함.

1. 표현상의 특징



● 「만흥(漫興)」

거룩(潔淨)한 즐거움(興) → 즐거움이 마음속에
거룩하다 (속세를 벗어난 자연에서의 흥취)

④ 만흥(漫興) (윤선도)

○ : 자연을 나타내는 중심 소재

산수(山水)간(山水間) 바위 아래(바위)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연 속, 속세와 떨어진 곳 초가집 - 소박한 생활을 의미함, 인민낙도

그 모른 놈들은 운논다 한다마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리고 하얏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효자 자신을 낮춘 겸손함의 표현, 화자의

소박한 뜻을 모르는 남들의 눈에 비친 화자의 모습을 표현

보리밥(보리) 찜(찌)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소박한 생활을 의미함, 알맞게

바윗(바위) 곳(바위)의 슬(슬)곳(곳)지(지) 노니(노니)노라

살것

그 나(나)은(은) 녀(녀)나(나)은(은) 일(일)이야(야) 부(부)를(를) 줄(줄)이(이) 어(어)시(시)랴

속세에서의 부귀영화 부러워함
[] : 상하적 표현 -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음

누(누)고(고)셔(셔) 삼(삼)공(공)도(도)곤(곤) 낫(낫)다(다) 하(하)더(더)니(니) 만(만)승(승)이(이) 이(이)만(만)하(하)랴

누군가 삼정승(명와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이(이)제(제)로(로) 해(해)어(어)든(든) 소(소)부(부) (겸(兼)父) 허(허)유(유) | 낙(낙)똥(똥)더(더)라

생각해 보니

아(아)마(마)도(도) 임(임)천(천)한(한)흥(흥) (林泉閑興)을(을) 비(비)길(길) 곳(곳)이(이) 업(업)세(세)라

주제어

[현대어 풀이] 누군가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천자라고 한들 이만큼 좋겠는가? /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더라. / 아마도 자연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비할 곳이 없으리라.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자연 친화적, 탈속적, 자족적
제재	자연을 벗하는 생활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의법을 사용하여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을 강조함. • 몰아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나타나 있음. 		

◆전체 구성

1수	분수에 맞는 삶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2수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3수	산을 마주하고 있는 즐거움	
4수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5수	자연생활을 운명으로 여김.	
6수	자신의 생활을 임금의 은혜로 여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1. 현대어 풀이

1수	자연 속에서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자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기도 한다마는 어리석고 세상에 어두운 사람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2수	보리밥과 찜(찌)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나머지 일(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4수	누군가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천자라고 한들 이만큼 좋겠는가?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더라. 아마도 자연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비할 곳이 없으리라.

2.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와 속세를 나타내는 소재

	자연	속세
1수	'산수', '띠집'	'그 모른 놈들'
2수	'보리밥 찜(찌)', '바윗(바위) 곳(곳) 지(지)'	'그 나(나)은(은) 일(일)'
4수	'임천한흥'	'삼공', '만승'

●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라 | 작자 미상
 반박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냄.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a-a-b-a의 구조(반박법)
 내면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가체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쩌귀 수돌쩌귀 비목걸새 크나큰
 구체적 소재를 나열하여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함. → 열거법
 장도리로 뚝삭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갑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현대어 풀이]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쩌귀, 수돌쩌귀, 비목걸새를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달아 불가 하노라.

창-하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과 그 이유
 창-하가 가장 인상적이다. 그 이유는 마음속 답답함을 창을 달아 해소한다는 발상이 참신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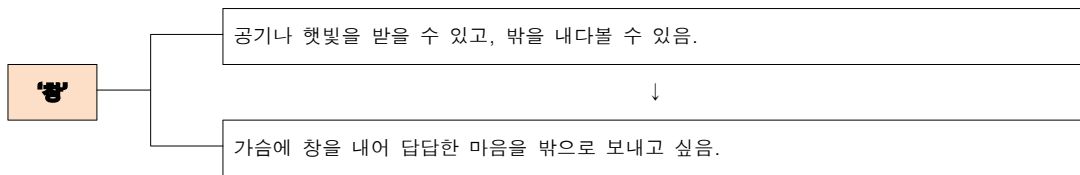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의지적
제지	창		
주제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문학성을 획득함. • 비애와 고통을 웃음으로써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임. 		

◆전체 구성

	현대어 풀이	구성
초장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냄.
중장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쩌귀, 수돌쩌귀, 비목걸새를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함.
종장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달아 불가 하노라.	창을 여달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함.

1. 시어의 의미와 참신한 발상



화자는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에서 오는 답답함을 풀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창을 내어 여달고 싶다는 소망으로 표출하고 있다. 가슴을 꽉꽉 막힌 방에 비유하여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창을 만들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2. 표현상의 특징

반박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a-a-b-a' 구조를 사용하여 창을 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냄.
열거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가슴에다 만들고 싶은 창(窓)의 종류를 나열하여 무슨 창이라도 만들고 싶은 간절함을 나타냄.
	암돌쩌귀 수돌쩌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삭 바가	창을 만드는 재료들과 만드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가슴에 창을 만들어 달고 싶은 소망을 나타냄.

반박과 열거를 통한 수다스럽고 과장된 표현은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며, 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상황을 풀어 버리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냄.

“시조 네 편” 학습 활동 문제

1 작품 ㉔를 감상하고, 내용상의 특징과 작품의 주제를 알아보자.

(1)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화자가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본래 은나라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그 신 하였던 무왕이 그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며 이를 반대했으나, 무왕은 끝내 새 왕조를 일으켰다. 그러자 두 사람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

지조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백이’와 ‘숙제’는 굳은 절개를 대표하는 대상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 작품의 화자는 충절의 대명사인 ‘백이’와 ‘숙제’의 지조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화자 자신이 ‘백이’와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녔음을 강조하고,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된 ‘수양 대군(세조)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2) ‘수양산’에 담긴 중의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 (1)과 관련하여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수양산’의 의미	→	작품의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이’와 ‘숙제’가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 먹던 장소. • ‘세조’가 즉위하기 전의 군호(君號)인 ‘수양 대군’ 		‘세조’의 ‘단종’ 폐위에 대한 비판과,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

2 작품 ㉔에 제시된 다음 시어들이 무엇을 형상화하는지 생각해 보고, 화자의 정서와 관련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 보자.

이화우, 추풍낙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어 시간적 거리감을 드러냄. • 비와 낙엽은 모두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음. 	→	효과
천 리	임과 화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과장하여 드러냄.		이별의 정서를 심화함.

3 작품 ㉔를 감상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1) ‘자연 속의 삶’과 ‘속세의 삶’을 드러내는 시구를 찾아보고, 각 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자연 속의 삶’	‘속세의 삶’	중심 내용
1수	‘산수’, ‘뉘집’	‘그 모른 놈들’	분수에 맞는 삶.
2수	‘보리밥 푹눅물’, ‘바빻긔 물긔’	그 나쁜 녀나쁜 일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4수	임천한흥	‘삼공’, ‘만승’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2) (1)의 내용을 참고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어떠한지 말해 보자.

화자는 속세의 삶이 부럽지 않다고 하며, 자연 속의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고 세속적 부귀영화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화하며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작품 ㉔를 감상하고,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살펴보자.

(1) 각 장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초장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냄.	→	‘창 내고자’라는 시구를 반복하고, 답답한 마음을 사방이 막힌 방에 비유함.
중장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함.	→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열거함.
종장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열거함.		

4-(2) 시조 네 편

(2) 작품 ㉗~㉙ 와 비교할 때,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작품 가 ~ 다 는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작품은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에 비해 길다.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평시조가 지니는 간결하고 정제된 아름다움 대신 숨 가쁘게 많은 말을 이어 나가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어조가 느껴진다.

5 작품 ㉗~㉙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 조선 시대 시조의 전개 양상을 파악해 보자.

작품	㉗	㉘	㉙	㉚
작가의 신분	사대부	기녀	사대부	작자 미상(서민)
내용	굳은 절의와 지조	임에 대한 그리움	자연을 벗하고 사는 즐거움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형식	평시조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6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조선 시대의 고시조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고시조의 어떤 점을 계승하였는지 말해 보자.

손톱으로 툇 튀기면
 째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드리우고 있건만.

- 이희승, 「벽공(碧空)」

고시조와의 차이점	고시조에서 계승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조는 2구가 하나의 장을 이루어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1구가 하나의 행을 이루고 있다. 고시조는 연시조를 제외하고는 제목이 없으나, 이 작품은 제목이 있다. 	중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고, 4·4조 또는 3·4조로 4음보를 이루는 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을 계승하였는지 말해 보자.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시조	성격	감각적 묘사적 영탄적, 예찬적
가을 하늘(벽공)을 맑고 투명한 유리에 빗댄, - 청각적 상상, 시각적 상상	제재	가을 하늘		
손톱으로 툇 튀기면 째하고 금이 갈 듯, 원근법, 파란 가을 하늘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촉각적 상상, 시각적 상상	주제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대한 예찬과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		
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드려놓고 있건만, 여운을 남기는 말로, 가을 하늘과 달리 인간사는 깨끗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맑고 깨끗한 하늘을 인간사와 대조하고 여운을 줌. 초창, 중창, 종창을 연으로 나누어 쓴 구별 배행 시조임. 청각적 상상, 시각적 상상, 촉각적 상상 등 감각적 수법이 엮보임. 		

...> 초창: 맑은 가을 하늘
 ...> 중창: 파란 가을 하늘
 ...> 종창: 맑고 깨끗한 하늘

- 이희승, 「벽공(碧空)」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限)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님 짜헤 닳드니
 - 성삼문

(나)
 ㉡이화우(梨花雨) 훗썩릴 제 울며 좁고 이별(離別)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 계량

(다)
 산수 간(山水間) 바희 아래 뒹집을 짓노라 호니
 그 모론 늬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늬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희 곳 뭉궂의 슬궂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제2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닳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ㅣ 낙똥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 윤선도, 「만흥(漫興)」

(라)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
 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쫓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 작자 미상

광남고등학교 (서울)

1.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수>의 '뒹집'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이다.
- ㉡ <2수>는 '뭉궂'는 속세의 삶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드는 공간이다.
- ㉢ <2수>의 '그 나쁜 녀나쁜 일'은 <1수>의 '산수'보다 <4수>의 '삼공'과 '만승'을 우위에 두는 삶을 의미한다.
- ㉤ <4수>의 '임천한흥'은 <1수>의 '어리고 하암의 뜻'이 실현된 결과이다.

- ㉠ <1수>, <2수>, <4수>에서의 자연은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공간이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이제'는 자신이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 ㉡ :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표상한다.
- ㉢ ㉢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의 표현으로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 ㉣ ㉣ : 화자와 교감을 나누는 대상으로 삶의 고뇌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존재이다.
- ㉤ ㉤ : 반복과 열거, 대구와 점층법을 활용하여 서민들의 발랄한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가)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표를 완성하고자 할 때, (가)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에 간단히 밝히고, '수양산(首陽山)'과 '채미(採薇)'에 담긴 중의적 의미를 ㉡, ㉢에 간단히 써 넣시오.

	백이숙제의 고사	㉠
'수양산'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 산	㉡
'채미'	고사리를 캐어 먹음	㉢

추례여자고등학교 (부산)

4.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 : 중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 (나) :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 (나) :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 (다) : 설의법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 ㉤ (라) : 간결하고 정제된 형식 속에 해학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5. (다)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홀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허라
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묻내 도하호노라
- ㉡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드냐
이시랴 허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호노라
- ㉢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허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쏘이런가 호노라
- ㉣ 이런들 엇더허며 저런들 엇더하료
만수산(萬壽山) 드령츄이 열거진들 엇더허리
우리도 이긋치 열거져 백 년(百年)썻지 누리리라
- ㉤ 오늘도 다 새겨나,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눈 다 미여든 네 눈 점 미여 주마
올 길헤 뽕 따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6. <보기>는 조선 시대의 고시조를 계승했다고 평가되는 작품이다. 형식면에서 고시조의 어떤 점을 계승하였는지 서술하시오. (2가지 요소를 찾아 서술할 것.)

<보기>

손톱으로 툇 튀기면
뽕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드리우고 있건만.

- 이희승, '벽공(碧空)'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7.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ㄴ. 불가능하고 엉뚱한 상황을 설정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ㄷ.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ㄹ. 일상적 사물들을 열거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ㅁ. 시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여 시적 화자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 ㉠ ㄱ, ㄴ, ㄹ
- ㉡ ㄱ, ㄷ, ㅁ
- ㉢ ㄱ, ㄹ, ㅁ
- ㉣ ㄴ, ㄷ, ㄹ
- ㉤ ㄷ, ㄹ, ㅁ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8. (다)의 시적 화자가 <보기>의 시적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려 보지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는 적네
창밖에는 삼경이 다 되도록 비가 내리는데
등불 앞의 내 마음은 만 리 밖에 가 있네

- 최치원, 「추야우중(秋夜雨中)」

- ㉠ 어지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에 힘쓰십시오.
- ㉡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며 원망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 ㉢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십시오.
- ㉣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가꾸십시오.
- ㉤ 입신양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속미인곡” 문역 명민

<p>보시 금관 심각 마오 미친 일이 이서 이다 그것일랑</p> <p>님을 피쳐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p> <p>물 7분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 화자의 걱정거리들-임금에 대한 충성</p> <p>몸 준 한 몸 고 했 었 은 엇 디 후 야 다 내 시 며</p> <p>5 가 을 과 겨 을 의 날 씨 에 는 누 가 모 셨 는 가</p> <p>아 침 전 의 죽 과 아 침 저 녀 진 지 는 옛 날 과 같 이 물 리 시 는 가 ○ 또는 도사(는)가</p> <p>가 나 긴 밤 에 잠 은 어 찌 주 무 시 는 가</p> <p>임 계 신 곳 의 소 식을 어 떻 게 해 서 려 도 일 려 고 하 니</p> <p>오 날 도 거 의 로 다 내 일 이 나 사 름 이 올 까 ○ 임의 소식을 전해 줌</p> <p>10 내 마 음 돌 데 엎 디 어 디 로 가 자 는 말 인 가</p> <p>잡 거 니 밀 거 니 높 은 산 에 올 라 가 니 □ 화자의 소임을 성취 하기 위한 공간</p> <p>구 름 은 물 은 이 기 니 와 안 개 는 무 슨 일 인 가 △ 화자의 임 사임을 가 꾀하는 장미(장안산)</p> <p>산 산 川 천 이 어 둑 거 니 日 일 月 월 을 엇 디 보 며</p> <p>가 까 은 거 리 도 모 르 는 데 천 리 를 바 라 보 라</p>	<p>그것일랑 생각 마오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p> <p>일을 모시고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p> <p>물김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어 몇 날일까</p> <p>몸 주위와 여름 더위는 어찌 지내시며</p> <p>가을과 겨울의 날씨에는 누가 모셨는가</p> <p>아침 전의 죽과 아침저녁 진지는 옛날과 같이 물리시는가</p> <p>가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p> <p>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일려고 하니</p> <p>오늘도 거의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p> <p>내 마음 돌 데 엎디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p> <p>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p> <p>구름은 물은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p> <p>산신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p> <p>가까운 거리도 모르는데 천 리를 바라보라</p>
--	--

<p>출 하 리 물 가 의 가 비 길 히 나 보 라 하 니 □ 화자의 소임을 성취하기 위한 공간</p> <p>보 람 이 야 물 결 이 야 어 등 정 된 데 이 고 △ 화자의 심란함 비유 △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간신)</p> <p>사 공 은 어 디 가 고 빈 배 만 걸 렸 는 고 ○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p> <p>강 강 天 천 의 혼 자 서 서 디 는 히 를 구 버 보 니</p> <p>님 다 히 消 소 息 식 이 더 욱 아 득 훈 데 이 고 ○ → 율내의 화소연 2- 임의 소식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p> <p>봉 모 簾 창 춘 자 리 의 밤 들 만 도 라 오 니</p> <p>벽 가 운 데 걸 린 푸 른 등 은 누 굴 위 해 밝 았 는 고</p> <p>오 르 며 내 리 며 해 며 며 서 성 이 니</p> <p>어 느 딴 힘 이 디 해 뜻 장 을 장 간 드 니</p> <p>정 성 이 지 극 하 여 궁 에 임 을 보 니</p> <p>육 길 은 얼 굴 이 만 나 마 늘 었 어 라</p> <p>마 음 에 먹 은 말 씀 을 실 것 올 리 자 하 니</p> <p>눈 물 이 연 달 이 나 니 말 인 들 어 이 하 여</p> <p>정 을 못 다 하 여 목 조 차 메 었 는 데</p> <p>방 정 맞 은 달 울 음 소 리 에 잠 은 어 찌 깨 었 던 고</p>	<p>차라리 물가에 가서 멧길이나 보라 하니</p> <p>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p> <p>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p> <p>강가 하늘 아래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p> <p>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p> <p>초가집 찬 자리에 밤 깊어 돌아오니</p> <p>벽 가운데 걸린 푸른 등은 누굴 위해 밝았는고</p> <p>오르며 내리며 해며며 서성이니</p> <p>어느딴 힘이 디해 뜻을 장간 드니</p> <p>정성이 지극하여 궁에 임을 보니</p> <p>육 길은 얼굴이 만나마 늘었어라</p> <p>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것 올리자 하니</p> <p>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이하여</p> <p>정을 못다 하여 목조차 메었는데</p> <p>방정맞은 달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고</p>
--	---

『가사』 어와 虛허事소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내려 안자 혼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은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갈녀』 爲來에서 爲來 안고 爲來에서 爲來 爲來가 노끼는 爲來한 爲來와 爲來적으로 爲來한
 『을녀』 爲來하리 爲來디여 『갈녀』 爲來월이나 爲來이서
 『갈녀』 爲來자가 爲來에게 爲來신한 爲來와 爲來를 爲來하는 爲來세 爲來 소극적
 『조언』 님 爲來신 爲來창 안히 爲來드시 爲來희리라
 『갈녀』 爲來각사님 爲來아야쿠니와 『을녀』 爲來곳은비나 爲來쇼셔
 『조언』 爲來각사님 爲來보다는 爲來차라리 爲來곳은비나 爲來쇼셔

◆핵심 정리

갈녀	가사	성격	서정적, 충신언주지사(忠臣戀主之詞)
운율	3(4)·4조, 4음보		
제제	임에 대한 그리움		
주제	연군(戀君)의 정		
구성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연군의 마음을 표현함. 보조 화자('갈녀')을/를 설정하여 대화체로 시상을 전개함. 세련되고 뛰어난 우리말 표현을 구사함. 		

◆구성

서사	임과 이별한 사연	'갈녀'의 질문
본사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을녀'의 답변
결사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마음	'갈녀'의 위로
		'을녀'의 하소연
		'을녀'의 결심
		'갈녀'의 조언

1. '갈녀'와 '을녀'의 대화 내용

'갈녀'의 질문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을녀'의 답변	자신이 임에게 지은 죄가 쌓였으며 조물주의 탓임.
'갈녀'의 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람.
'을녀'의 하소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의 안부가 염려되고 소식이 궁금함. 산과 물가로 가서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림. 독수공방의 외로움 속에서 꿈에서나마 겨우 임을 만남.
'을녀'의 결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 임의 곁으로 가고 싶음.
'갈녀'의 조언	곳은비가 되기를 바람.

2. '갈녀'와 '을녀'의 역할

'갈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임. 작품의 전개를 돕는 기능적 역할을 함. 극적인 결말을 짓게 함.
'을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중심 화자임.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함.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함.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인물

3. 여성 화자 설정의 효과

작가의 상황
탄핵을 받고 낙향해 있던 작가는 자신의 지극한 연군(戀君)의 심정을 여성 화자에 의탁하여 표현함.

효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음.

여성 화자 설정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을 취함.

4.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

	'낙월'	'구준비'
생각의 주제	'을녀'	'갑녀'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는 달 • 멀리서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임과 함께할 수 없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절망감을/를 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랫동안 내리는 비 • 임의 옷을 적시며 임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내포함.
성격	수동적, 소극적	능동적, 적극적

5.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 「사미인곡」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극치를 이룸.
- 고려 가요 「정과정」의 맥을 잇는 연주시사로 후대의 작품에 영향을 끼침.

“속미인곡” 학습 활동 문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를 '갑녀'와 '을녀'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자.

서사	'갑녀'의 질문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을녀'의 답변	자신이 임에게 지은 죄가 쌓였으며 조물주의 탓임.
본사	'갑녀'의 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람.
	'을녀'의 하소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안부가 염려되고 소식이 궁금함. • 산과 물가로 가서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림. • 독수공방의 외로움 속에서 꿈에서나마 겨우 임을 만남.
결사	'을녀'의 결심	죽어서 낙월(落月)이나 되어 임의 곁으로 가고 싶음
	'갑녀'의 조언	긋은비가 되기를 바람.

2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갑녀'와 '을녀'의 태도를 파악해 보자.

시어	의미	화자의 태도
낙월	멀리서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	[을녀] 달이 되어 멀리서 임을 바라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구준비	임의 옷을 적시며 임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존재.	[갑녀] 비가 되어 임의 가까이에서 임과 함께하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3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자.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을녀', '임'은 누구를 비유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작품만을 고려했을 때, '을녀'와 '임'은 각각 이별한 여성과 남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거하고 있던 작가의 상황과 관련지어 본다면 '을녀'는 작가 자신을, '임'은 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는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정을 임금이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2) 속미인곡

(2)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과를 말해 보자.

탄핵을 받고 낙향해 있던 작가는 자신의 지극한 연군(戀君)의 심정을 여성 화자에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즉,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뜻하고 절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고, 독자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신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형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속미인곡」과 비교해 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 모습 버혀 내여 별 둘을 밍글고져
구만 리 당턴의 번드시 걸려 이셔
고은 님 계신 고디 가 비최어나 보리라
- 정철

	시조 「내 모습 버혀 내여」	가사 「속미인곡」
공통점	4음보의 율격을 가짐.	
차이점	주제 의식을 3장 6구의 짧은 형식 속에 담아내기 위해 압축적으로 표현함.	주제 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세부적인 인물과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장형화됨.

• 가사가 발생한 이유: 시조는 비교적 형식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정서를 정제되고 압축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가사는 4음보의 율격 이외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정서를 담아내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가사 작품에는 화자의 정서와 정서의 변화 과정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이 가사가 발생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5 다음은 조선 후기의 가사 작품이다. 조선 전기 가사인 「속미인곡」과 비교하여, 내용과 주제 면에서 가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자.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시비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느다
종조(終朝) 추창(惆愴)하며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느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삭은 저 소취는 벗 보임도 도흐세고
가시 영근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虛堂) 반벽(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러쳐 더더 두자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속미인곡」	「누항사」
내용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일에 대한 맹세의 마음	가난한 처지에 대한 고백과 이에서 비롯된 감정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지연을 벗 삼아 인변(仁變)하고자 하는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

• 가사의 변화 양상 조선 전기에는 김홍기도 연군지정을 주로 다루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내용과 주제 측면에서 현실을 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실생활을 담아내었다.

4-(2) 속미인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뉘이고
 天阮上尙 白帛玉帛京京을 었디하야 離니別별하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수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흥가마는
 었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굳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흥뉘든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해여히니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7티 빠혀시니
 하날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허랴.
 설워 플터 헤니 造造物물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7튼 얼굴이 편히실 적 몇 날일고.
 春춘寒한苦고熱열은 었디하야 디내시며
 秋秋日일冬동天天은 뉘라셔 뉘섯논고.
 粥粥早조飯飯 朝 초夕석 뉘 네와 7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좁은 었디 자시논고.
 님다히 消息息식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름 올가.
 내 맘을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자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 7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山山川천이 어둡거니 ㉢日月月을 었디 보며
 咫咫尺척을 모르거든 千천里리를 부라보랴.
 찰하리 물 7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데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논고.
 江江天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息息식이 더욱 아득흥뉘이고
 茅모簷점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半半壁벽靑靑燈등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누리며 헤뜨며 바자니니
 저근뉘 力力盡진하야 7뉘음을 잠간 드니
 精精誠성이 지극하야 7뉘음을 보니
 玉옥 7튼 열구리 半반이 나마 늘거세랴.
 맘의 머근 말슴 슬 7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 흥며
 情정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히니
 오던뉘 鷄계聲聲의 좁은 었디 7뉘던고
 어와 虛虛事스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부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 출하리 식어 디어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서
 [A] 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최리랴.
 〔 각시님 돌이야7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인천고등학교 (인천)

1.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 ~ ㉥ 중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은?

〈보기〉
 <속미인곡>은 조선 시대 최고의 가사 작가로 평가받는 정철의 가사로서, 작가가 1585년부터 4년 동안, 동안과 서인의 당파 싸움 때문에 고향인 전라도 창평에 내려가 있던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은 <사미인곡>과 함께 '전후미인곡(前後美人曲)'이라 불린다.
 ㉠ ㉠ ㉡ ㉡
 ㉢ ㉢ ㉣ ㉣
 ㉤ ㉤

인천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의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달'에게 '구준비'가 되어서 임의 곁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고 있다.
- ㉡ 죽어서 '낙월'이 되기보다는 '구준비'를 맞더라도 임 곁에 있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 '달'과 '비'가 모두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자연에 자신을 의지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 ㉣ 멀리서 임을 비추어 주는 '낙월'보다는 '구준비'가 되어 좀 더 임에게 가까이 가라고 조언하고 있다.
- ㉤ '구준비'와 같은 차가운 존재가 되기보다는 '낙월'과 같은 따뜻한 존재로 환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인천고등학교 (인천)

3. 윗글과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보기〉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설흔 날
 저근뉘 생각마라 이 시름 낮자하니
 마음의 맏쳐 이셔 骨髓(골수)의 깨터시니
 扁鵲(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찰하리 식어디어 범나빅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대마다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날애로 님의 오새 올므리랴.
 님이야 날인 줄 모라셔도 내 님 조차려 하노랴.
 - 정철, 「사미인곡」

- ㉠ 두 작품 모두 화자가 입을 그리워하고 있다.
- ㉡ 두 작품 모두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 ㉢ 두 작품 모두 펼쳐진 상황을 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 두 작품 모두 화자는 죽어서도 임의 곁에 있고 싶어 한다.
- ㉤ 윗글은 두 인물의 대화로, <보기>는 화자의 독백으로 전개되고 있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4. 이 작품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기>와 같이 현대어 대화로 재구성하였을 때, 그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갑녀 : 당신은 해가 다 저문 날에 어디를 가시나요?
 을녀 : ㉠ 제가 죄가 산같이 많이 쌓여서 임과 헤어졌습니다.
 갑녀 : 그런 생각 말아요.
 을녀 : 저는 입을 가까이 모셔 임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이 요즘 잘 지내시는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 임 계신 소식을 알기 위해 산과 강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 돌아와 잠이 잠깐 들어 꿈속에서 입을 만나 하소연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 닭소리에 잠을 깨어 보니 허탈함만 느껴졌습니다.

- ㉠ ㉡ ㉢ ㉣
- ㉡ ㉣ ㉤ ㉠
- ㉢ ㉤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5. 이 작품과 <보기>와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앞뒤로 분주히 다녀, 선왕(先王)의 발자취 따르려 했더니
 임은 내 마음 아니 살피시고, 도리어 모함만 믿고 진노하시
 누나.
 나는 직언(直言)이 해로울 줄 알면서도, 차마 버려둘 수가
 없고
 맹세코 하늘은 알리라, 오직 임 때문임을.
 당초에 내게 약속하더니, 나중에 돌아서서 탄마음 가지실
 줄이야.
 나야 그 이별 어렵지 않지만, 임의 잦은 변덕 가슴 아파라.
 - 굴원, <이소>에서

- ㉠ 두 작품 모두 유배 가사라는 갈래상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 문학사적으로 <보기>의 작품은 위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 ㉢ 위 작품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직언을 듣지 않는 임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두 작품 모두 임금으로부터 버림받은 신하가 임금의 신임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쓴 글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6. <보기>의 밑줄 친 시어 중 위 글의 ㉡의 비유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브름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山眞(산진)이 水眞(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르미도 다 쉬
 여 넘는 高峯長城嶺(고봉장성령) 고기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여 넘어가리
 라

- 山眞(산진)이 : 산지니. 산에서 자란 매. 야상의 매를 의미한다.
- 水眞(수진) : 수지니. 사람의 손으로 길들인 매.
- 海東靑(해동청) : 송골매, 매 등을 의미한다.

- ㉠ 브름 ㉢ 고기
- ㉡ 구름 ㉣ 보르미
- ㉤ 님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7. 다음은 윗글을 감상한 감상문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속미인곡>은 ㉠ 두 여인의 대화방식을 취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주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 ‘갑녀’와 ‘을녀’는 편의상 붙인 이름으로 모두 작가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한 장치이다. ㉢ 갑녀는 전개와 종결을 위한 보조적 화자이지만 을녀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을녀의 언행을 평가하여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비판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 을녀는 하소연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작가를 대변하여 주제를 구현하는 중심화자로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한다. ㉤ 이러한 대화구조로 인하여 을녀의 사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실한 것이 된다.

- ㉠ ㉡ ㉢ ㉣
- ㉡ ㉣ ㉤ ㉠
- ㉢ ㉤

“임경업전” 분석 정리



제제 기관

갈래	국문 소설, 역사 소설, (군담) 소설	성격	민족적, 비판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배경: (병자호란) 때 • 공간적 배경: 조선
제제	'임경업'의 영웅적 일대기		
주제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과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에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함. •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과 달리, (비극)(으)로 끝남. 		



전제 구성

발단	무과에 급제한 '임경업'이 가달을 물리쳐 용맹을 떨침.
전개	호국이 '임경업'을 피해 함경도로 들어와 '세자'와 '대군'을 인질로 잡아감.
위기	'호왕'이 '임경업'에게 명을 치도록 요구하나 '임경업'은 명과 내통하여 거짓 항복을 받음.
결정	호국을 치려다 잡힌 '임경업'은 '호왕'을 감복시켜 귀국하나, '(김자점)'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됨.
결말	'인조'가 '김자점'을 처형하고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함.



핵심 강의

1. 등장인물의 갈등 양상

	'임경업'과 '호왕'	'임경업'과 '김자점'
갈등 내용	'호왕'이 권위를 내세워 '임경업'에게 항복을 요구함.	'김자점'이 (역모)에 방해가 되는 '임경업'을 죽이고자 함.
해소 과정	'호왕'이 '임경업'의 (충의)에 감복하여 '임경업'의 요구대로 '세자'와 '대군'을 풀어 주고 '임경업'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함.	'김자점'의 음모로 죽은 '임경업'이 임금의 꿈에 현신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임금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함.
의의	'임경업'의 용맹과 충의가 강조됨.	억울하게 죽은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한이 민중에 의해 해소됨.

2.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병자호란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로, 청나라에서 군신(君臣) 관계를 요구한 것을 조선이 물리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함. 이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청나라에 대하여 신하의 예를 행하기로 한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맺음.
-------------	---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하고 신하의 예를 행하기로 한 인조의 모습이 작품 내에 반영되어 있음.
강화도의 할락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된 후 대군과 궁중 비빈이 청나라의 (포로)(으)로 잡혀갔던 모습이 작품 내에 반영되어 있음.

3. 작품의 창작 의도

사실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경업'과 '김자점' 등은 실존 인물임. • 실제 사건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함.
허구적 요소	'임경업'이 가달을 친 일, '임경업'이 '호왕'의 부마 제의를 받은 일과 '세자' 및 '대군'을 구해 낸 일 등은 허구의 사건임.



병자호란은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임경업'과 같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임을 강조하여 허구적인 방식으로나마 치욕과 분노를 (위로)하고자 했던 심리가 창작의 이유가 됨.

4. '임경업'의 희생에서 드러나는 주제 의식

죄가 없는 '임경업'이 '김자점'의 흥계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부당한 사건에는 무능한 지배 계급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전후(戰後)에도 사리사욕만 일삼던 간신 등 지배층의 문제점을 민중의 시각에서 제기하며 비판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5. 작품의 한계점

'임경업'은 명나라를 대신해 호국(청나라)에 침입한 '가달'을 물리치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명나라로 도피한다. 또 호국의 강압으로 명나라를 칠 때도 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은공을 잊지 않고 명나라와 내통한다. 반면에 호국에 대하여는 시종일관 적대적 태도를 가진다. 즉 이 작품에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데, 이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추구했던 당시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이 작품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임경업전” 작품 탐구 문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과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인물들의 갈등 양상		갈등의 결과
<p>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왕'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함. 	↔	<p>갈등의 결과</p> <p>'호왕'이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세자'와 '대군'을 풀어 달라는 '임경업'의 원을 들어줌.</p> <p>'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함.</p>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경업' 자신의 계교를 이루기 위해 '임경업'을 역적으로 몰고 잡아들임. 	→	

2 다음은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작품에 담긴 시대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조선 인조 14년(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친 뒤, 조선에 군신(君臣)의 예를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동안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신(臣)의 예를 행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사실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 운동이 전개되었다.

(1)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이 작품과 같은 군담 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힌 이유는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여진족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조선이 청나라의 침략에 패배한 것은 큰 충격이었다. 따라서 군담 소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월감을 보여 주고,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어 치욕을 씻고자 한 것이다.

(2) 소설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때, 실제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인물인 '임경업'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

민중들의 칭송을 받던 인물의 비극은 결국 당시 민중들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다. '임경업'은 영웅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간신의 모해로 비극적 죽음을 맞는다. 이와 같은 인물의 죽음을 통해 민중들이 집권층에 대해 갖는 분노와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4-(2) 임경업전

3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과 활약상을 「임경업전」과 비교해 보자.

박 씨가 옥령을 드리우고, 좌수(左手)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부치니, 화광이 호진을 충돌하여, 호진 장졸이 항오(行伍)를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回軍)하여 발행할새,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 미색(長安美色)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 씨 계화로 시켜 외치기를,

“무지한 오랑개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호장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혹 질욕(叱辱)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 씨가 또 계화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 일양 그러하러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 천지 뒤덮게 오며, 음풍(陰風)이 일어나며, 백설(白雪)이 날리며, 얼음이 얼어 호군 중 말 발이 땅에 붙어 촌보(寸步)를 옮기지 못하는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1) 두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과 활약상을 비교해 보자.

	「박씨전」	「임경업전」
주인공의 특성	뛰어난 학식과 재주를 갖춘 여성임.	충성심과 절개를 지키는 조선의 장수임.
활약상	도술을 사용하여 호적들을 통과하게 물리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달로부터 호국을 구원함. ‘호왕’을 감복시켜 ‘세자’와 ‘대군’이 풀려나게 함.

(2) 이 작품이 당대의 여성들에게 주었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성의 뛰어난 활약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 성취 욕구에 대한 대리 만족의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을 드러내어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임경업전” 임기 상 문제

1. ‘세자’와 ‘대군’이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호왕’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충성심과 절개를 잃지 않는 ‘임경업’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원대로 ‘세자’와 ‘대군’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였다.

2. ‘호왕’이 ‘대군’을 기특히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호왕’의 말에 금은(金銀)과 같은 재물을 청한 ‘세자’와 달리,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에 ‘호왕’이 ‘대군’을 기특히 여긴 것이다.

3. ‘임경업’이 잡혀가는 모습을 본 의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임경업’을 본 의주 백성들은 울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4. ‘임경업’이 ‘격군’들에게 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모습은 무엇인가?

‘임경업’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군사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임경업’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5. 오랜만에 ‘임경업’을 보게 된 ‘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상’은 ‘김자점’의 흥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임경업’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관을 벗고 청죄하는 ‘임경업’의 태도가 의아했을 것이다.

6. ‘김자점’이 ‘임경업’을 잡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김자점’은 임금에게 신뢰를 받고, 불모로 잡힌 ‘세자’와 ‘대군’을 풀려나게 한 ‘임경업’이 조선으로 돌아온다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에 ‘임경업’을 잡아들인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호왕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가로되,
 “병자년에 우리 주상이 종사(宗社)를 위하여 ㉡네게 항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목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요.”
 하니 호왕이 분통이 터져 군사에게 명하여,
 “내어 베어라.”
 하니 경업이 대꾸하여,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십보지하에 있느니라.”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빠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歎服)하여,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忠臣)이라.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요.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하며,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하더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 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 장군이 ㉤천자에게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며 궁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왕을 뵈오니 호왕이 이르기를,
 “경 등을 임경업이 생사 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 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 정을 표하리라.”
 하거늘 세자는 금(金銀)을 청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을 청하여 쉬이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왕이 각각 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뵈시고 나와 하직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의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거니와 장군을 두고 가니 마음이 어두운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바라건대 장군도 쉬이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하니 경업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이 고국에 돌아가시니 불송만행이오나, 모시고 가지 못하오니 가슴 아픔을 어찌 측량하오리까.”
 하니 세자가 가로되,
 “장군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연함이 비할 데 없는지라, 중로에서 기다릴 것이니 속히 돌아오음을 주선하라.”
 하니 경업이 탄식하며,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빠 가시면 신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하고 출발하여 백두산 아래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임 장군이 아니었던들 우리를 위하여 만리 타국에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 뉘 있으며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명천(明天)이 도와 쉬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더라. <중략>
 이때에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되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게 상께 주상하기를,
 “㉧경업은 반신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가 되어 제 계교를 이루지 못하며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이제 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大逆)을 그저 두리이까.”
 상이 크게 놀라 말씀하시기를,
 “㉨무슨 연고로 만고 충신을 해하려 하는가.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 오너라.”
 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리고 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가 와서 이르되,
 “장군이 반(反)한다 하여 역적으로 잡아 오라 하신다.”
 하고 칼을 씌워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경업이 세별영에 다다라 전일을 생각하고 격군들을 불러,
 “너희들이 부모처자를 이별하고 만리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매 너희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하였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죽게 되매 다시 보기 어려우니 여등(汝等)은 각각 돌아가 잘 있거라.”
 하니 격군 등이 울며 말하기를,
 “아무런 연유를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어찌하리요. 과히 슬퍼 마소서.”
 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 경업이 삼각산을 우러러보고 슬퍼하며,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죽게 되니 뉘러서 신원(伸冤)하여 주리요.”
 하고 통곡하니,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전하여지니, 상이 기뻐하사 승지로 하여금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이 무사히 돌아오매 기쁘고 다행하여 즉시 보고 싶으나, 먼 길을 왔으니 잘 쉬고 명일 입시(入侍)하라.”

하시니 ㉔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하교를 전하지 못한지라. 경업이 생각하되 나라에 친임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세자와 대군이 내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야로 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리라. 경업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여 이르기를,

“옥졸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심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더니 다음 날 상이 정좌하시고, 승전 내시 한 사람을 보내어 경업을 부르시니 그 사람 또한 자점의 동치라 자칫 죽을 줄 앎고 주저하니라. 이때 마침 전옥(典獄) 관원이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에게 일러 가로되,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전에 가둔 것은 모두 자점의 모계(謀計)이니, 그대는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게 하시오.”

하니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인 줄 알고, 불승 통한(不勝痛恨)하여 ㉕바로 몸을 날려 하여 주상께 뵈옵고 관을 벗고 청죄(請罪)하오되,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가와 친히 불러려고 하시와 문득 청죄함을 보고 깜짝 놀라시어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에 반가운 마음 금하지 못하나 원로에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보게 되니 안타까움 거늘, 하물며 청죄라니 그게 무슨 말이나? 자세히 말하라.”

하시므로 경업이 둔수(頓首) 사죄(謝罪)하여 말씀 여쭙기를,

“소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오다가 중로에서 도망하였는 바 그 죄는 만사무석(萬死無惜)이오나, 대명과 합심하여 호국을 처서 왕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 오고자 하였던니 간악 무리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습다가, 천행으로 돌아오더니 의주서부터 잡아 올리라 하고 목에 칼을 씌어 끌려 올라오니 아무 까닭을 몰라 망극함을 이기지 못하고 전옥에 갇혀 있다가 이게 다시 천안(天顔)을 뵈오니, 비록 죽사와도 한이 없습니다.”

하는지라, 상이 들으시고 매우 놀라시어 조신(朝臣)에게 알아 올리도록 명하니, 자점이 하릴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상께 아뢰기를,

“경업이 역신이옵기로 잡아 가두고 품달(稟達)하고자 하였나이다.”

하거늘,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이 몫쓸 역적 놈아, 네 벼슬이 높고 국록(國祿)이 족하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 찬역(篡逆)할 마음을 두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점이 묵묵무언이어늘, 상이 진노하여 꾸짖기를,

“경업은 삼국에 유명한 장수요. 또한 천고 충신이라 너희놈이 무슨 뜻으로 죽이려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符同)을 꾀함이라.”

하시고, 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경업은 나가라고 하시어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다가,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타질하니 거의 죽게 되며 전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

- 작자미상, 「임경업전」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 ㉡ 발화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여 인물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 ㉤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호왕은 대군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높이 평가했다.
- ㉡ ㉡ : 김자점은 세자와 대군의 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임경업을 모함하고 있다.
- ㉢ ㉢ : 임경업에 대한 임금의 신의가 굳건함을 나타내고 있다.
- ㉣ ㉣ : 김자점의 위세가 온 조정에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 ㉤ : 임경업의 비범한 능력을 통해 영웅의 품모를 드러내고 있다.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3. ㉠~㉤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 a ㉢ b
- ㉡ c ㉣ d
- ㉤ e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4. ㉡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 ㉠ 위풍당당(威風堂堂) ㉢ 파죽지세(破竹之勢)
- ㉡ 견강부회(牽強附會) ㉣ 적반하장(賊反荷杖)
- ㉢ 조삼모사(朝三暮四)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임경업은 사신 이시백을 따라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이후 강성해진 호국은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 이를 막도록 한다.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들어 와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하였으나, 호국에 인질로 잡혀 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 준다. 이후 호왕은 명 나라를 치겠다며 조선에 청병을 하고,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들어나 호국으로 끌려가게 된다.

(나)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歎服)하여,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忠臣)이라.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오.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하며,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하더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 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 장군이 천자에게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며 궁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왕을 뵈오니 호왕이 이르기를,

“경 등을 임경업이 생사 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 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 정을 표하리라.”

하거늘 세자는 금(金銀)을 청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을 청하여 쉬이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왕이 각각 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다) 이때에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되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게 상께 주상하기를,

“경업은 반신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가 되어 제 계교를 이루지 못하매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이제 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大逆)을 그쳐 두리이까.”

상이 크게 놀라 말씀하시기를,

“무슨 연고로 만고 충신을 해하려 하는가.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 오너라.” 하더라.

(라) 이때 경업이 데리고 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가 와서 이르되,

“장군이 반(反)한다 하여 역죄로 잡아 오라 하신다.”

하고 칼을 씌워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마)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이 몸쓸 역적 놈아, 네 벼슬이 높고 국록(國祿)이 족하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 찬역(篡逆)할 마음을 두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점이 묵묵무언이여늘, 상이 진노하여 꾸짖기를,

“경업은 삼국에 유명한 장수요. 또한 천고 충신이라 너희 놈이 무슨 뜻으로 죽이려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符同)을 꾀함이라.”

하시고, 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경업은 나가라고 하시어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다가,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타질하니 거의 죽게 되며 전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

[뒷부분 줄거리] 임경업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그 후 꿈속에서 임경업의 현신을 본 왕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한다.

- 작자 미상, 「임경업전」

분천여자고등학교 (부산)

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 씨가 옥렴을 드리우고, 좌수(左手)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부치니, 화광이 호진을 충돌하여, 호진 장졸이 항오(行伍)를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回軍)하여 발행할새,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 미색(長安美色)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 씨 계화로 시켜 외치기를,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호장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혹 질욕(叱辱)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 씨가 또 계화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 일양 그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 천지 뒤덮게 오며, 음풍(陰風)이 일어나며, 백설(白雪)이 날리며, 얼음이 얼어 호군 중 말 벌이 땅에 붙어 촌보(寸步)를 옮기지 못하는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윗글과 <보기> 모두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 <보기>와 달리 윗글에서는 실존했던 민중적 영웅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 ㉢ <보기>와 달리 윗글에서는 영웅과 대립하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인물간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여성 영웅의 활약을 서술하면서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문현여자고등학교 (부산)

6.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역직로 잡힌 영웅을 보고 애통해하는 민중들을 통해, 호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
- ㉡ 간신의 말을 듣고 충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왕의 모습을 통해,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무능한 지배층 탓으로 돌리고 있어.
- ㉢ 영웅에게 처벌 받는 간신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집권층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 ㉣ 청과의 전쟁에 패배한 역사적 사건을, 소설에서는 승리한 것으로 서술하여 정신적 승리감과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있어.
- ㉤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임금을 먼저 생각하는 영웅에게 감동하는 호왕의 모습을 통해, 당대의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어.

대전부룡고등학교 (대전)

7. <보기1>과 <보기2>를 참고하여 윗글과 같은 군담 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혔던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보기1>

조선 인조 14년(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친 뒤, 조선에 군신(君臣)의 예를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동안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신(臣)의 예를 행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사실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는 북벌 운동이 전개되었다.

<보기2>

문학에서의 환상은 현실 세계를 뒤집어 보게 함으로써 독자에게 낯설고 경이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욕망의 해소를 대리한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환상적 요소를 동원하여 현실의 모방과 재현이라는 문학적 형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의미를 창조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이를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당대의 욕망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건>

- 1. ‘병자호란’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 서술할 것
- 2. 문장 형식
예) ‘임경업전’과 같은 군담소설을 통해 실제 패배한 전쟁에 대해 (~ 고, ~ 다.)

“땀땀 땀땀 땀” 딸려 땀땀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시간적 배경: 암울한 시대, 자기 성찰의 시간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공간적 배경: 일본

부정적 현실에 대항할 실질적인 힘이 없는 존재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시를 쓰는 것에 대한 괴로움.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 현실적 고민과 거리가 있는 지식인의 삶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가족의 노고와 사랑
 보내 주신 학비 봉투(學費封套)를 받아

대학(大學)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敎授)의 강의(講義) 들으러 간다」
 ...→ 1~4연: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낌.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적다 잃어버리고
상실

나는 무얼 바라
무기력함, 좌절감(하강적 이미지)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무기력한 자신을 단정함.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시를 쓰는 행위를 현실적·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함.
 부끄러운 일이다.」 ...→ 5~7연: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자기반성 대해 부끄러움을 느낌.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 1연의 변형·반복 - 현실 재인식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부정적 현실(일제 강점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희망, 극복 의지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긍정적 미래(망목) 내면적 자아
현실적 자아 :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시대가 오듯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아침’ 또한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
내면적 자아 아라는 믿음.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두 자아의 화해, 내적 갈등의 해소
 ...→ 8~10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짐.

4-(3) 쉽게 씌어진 시

◆제제 기관

감매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반성적, 저항적
제제	시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주제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구체화함. 		

◆전제 구성

1~4연	(슬픔)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낌.
5~7연	부끄러움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시)을/를 쓰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낌.
8~10연	현실 극복 의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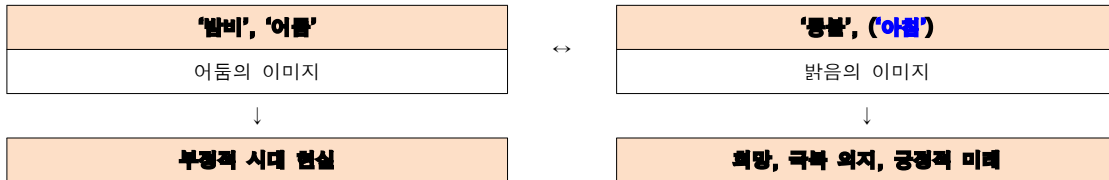
1. 화자의 자아 분열과 화합

현실의 '나'	이상의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자아 • 암울한 시대 상황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적 자아 •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님.



'최초의 (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함. •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짐.
-------------------	---

2. 상징적 시어의 대립



3.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일본 유학 중인 화자는 일제의 민족 탄압이 극심해짐에 따라 자신이 하는 공부(시를 쓰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며,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낌.
--------------------------------------	---	--

“꿈만 꾸던 시” 막을 막을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배경을 나타내는 시구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 보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구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구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상황: 화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대학생인데, '육첩방'으로 짐작할 때 일본에 유학 중이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밤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성찰하고 있다.
--

4-(3) 쉽게 씌어진 시

2 이 작품의 각 연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주요 내용
1~4연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낌.
5~7연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낌.
8~10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짐.

3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시구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1)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이 작품은 1942년에 창작되었다. 일제는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 중국 대륙으로의 침략을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약탈하였다. 또한 황국 신민화, 신사 참배 및 일본식 성명 강요 등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때 중국 상하이나 만주 등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의 항일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인 대장을 죽인 뒤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오사카에서 순국하였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하였다.

(2) (1)을 바탕으로 시구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과 ‘부끄러운 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	‘부끄러운 일’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고 이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는 시를 쓰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뇌와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찰이 담겨 있다.	시를 쓰는 일을 시대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3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내용과 서술 방식 면에서 살펴보자.

<p>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p> <p>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p> <p>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p> <p>지금 눈 내리고 /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p> <p>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 이육사, 「광야(曠野)」</p>
--

	「광야」	「쉽게 씌어진 시」
화자의 어조	의지적 어조	자아 성찰적, 반성적 어조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자아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붙여.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높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殿)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소담고등학교 (세종)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시간적 배경이자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하며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
- ㉡ ㉡ : 낮설고 시적 화자를 억압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 ㉢ ㉢ :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제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 ㉣ :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꾸는 조국의 불확실한 광복을 나타낸다.
- ㉤ ㉤ : 분열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합을 의미한다.

소담고등학교 (세종)

2. <보기>를 참고하여 ㉦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이 작품은 시인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중이던 1942년에 쓴 작품으로, 윤동주는 평소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으며 나라를 잃은 시기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던 시인의 고뇌를 반영한 것이다.

<조건>

1. 시적 화자의 어조를 포함할 것.
2. 7연까지의 현실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대응 태도를 포함할 것.

동탄고등학교 (경기)

3.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배경을 고려할 때, 작가가 '쉽게 씌어진 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창작된 시대배경을 반드시 언급할 것.
- 작가와 시적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 후, 시를 쓸 때 작가의 현실 대응 태도와 심정을 서술할 것.

4-(3) 쉽게 씌어진 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옥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殿)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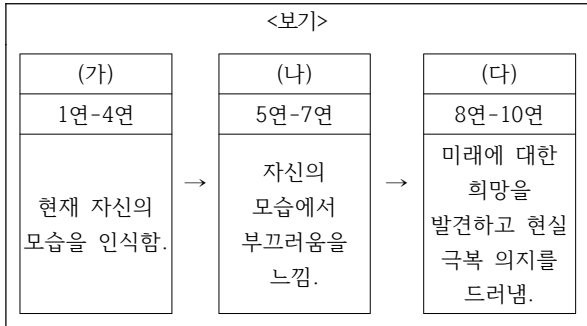
 옥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화흥고등학교 (경기)

4. <보기>의 구조에 따른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의 '옥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를 통해 시적화자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 (나)에서 '부끄러운 일이다.'의 이유는 (가)의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
- ㉢ (다)의 '최후의 나'와 (나)의 '홀로 침전하는' 나는 현실적 반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어.
- ㉣ (가)에서의 현실이 (나)에서도 반복적으로 변주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는 무엇 바라'로 표현되고 있어.
- ㉤ (가)의 '밤비'와 (다)의 '등불'은 현재의 암울한 현실이지만 (다)에서의 화자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화흥고등학교 (경기)

5. 밑줄 친 대상의 표현방법이 ㉠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 이육사, '광야' -
- ㉡ 어루만지듯 / 당신 / 숨결 / 이마에 다사하면 // 내 사랑은 아지랑이 / 춘삼월(春三月) 아지랑이
 - 이영도, '아지랑이' -
- ㉢ 하늘에는 성근 별 /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 정지용, '향수' -
- ㉣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 매양 쓰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1' -
- ㉤ 동짓달에 치자 꽃이 피는 신방에서 신혼일기를 쓴다 없는 것이 많아 더욱 따뜻한 아랫목은 평강 공주의 꽃밭 색색의 꽃씨를 모으던 흰 봉투 한 무더기
 - 박라연, '서울에 사는 평강 공주' -

화홍고등학교 (경기)

6. ㉓, ㉔의 함축적 의미를 쓰고, <보기>의 시에서 ㉓, ㉔와 유사한 의미의 시구를 찾아 쓰시오.

<보기>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 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세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 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 (1) ㉓의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
- (2) ㉓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구를 쓰시오.
- (3) ㉔의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
- (4) ㉔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구를 쓰시오.

광주고등학교 (광주)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밝음과 어둠의 시각적 이미지를 대립시키고 있다.
- ㉡ 냉소적 태도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 일부 시행을 명사로 끝을 맺어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 화자의 내면을 고백하는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적 화자는 독백적이고 성찰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 ㉡ 작품을 작가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면 감상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 ㉢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시적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인 의지로의 변화를 보인다.
- ㉣ 하강과 상승의 대립적인 심상(이미지)를 사용하여 전통적 가치의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 ㉤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태평천하” 문학 명칭

◆핵심 정리

장르	풍자 소설, 가즉사 소설	성격	비판적, 풍자적, 반어적
시절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서울
제재	일제 강점기의 타락한 삶	주제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화화의 방식으로 인물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임. • 방언과 구어체 및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함. 		

◆전체 구성

발단	인력거를 탄 ‘윤 직원 영감’이 그 샅 때문에 인력거꾼과 승강이를 함.
진기	‘윤 직원 영감’의 집안 내력과 재산 축적 과정을 제시함.
위기	‘윤 직원 영감’은 둘째 손자인 ‘윤중학’에게 기대를 걸.
결정	‘윤 직원 영감’은 ‘윤중학’이 사상 관계로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받음.
결말	‘윤 직원 영감’은 ‘윤중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에 분노함.

※ 교과서 수록 내용은 ‘절정~결말’ 부분임.

1. 등장인물 간의 관계 및 특징

1대	‘윤 직원 영감’ (‘윤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대지주이지만 구두쇠임. • 아버지 ‘윤용규’가 화적에게 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일본인들이 불한당을 막아 준다고 생각함. • 사회주의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므로 불한당 폐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함.
-----------	----------------------	---



2대	‘윤창식’ (‘윤 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은 ‘군 서기’로, ‘윤 직원 영감’의 아들이자, ‘윤중수’와 ‘윤중학’의 아버지임. • ‘윤 직원 영감’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함.
-----------	-------------------	--



3대	‘윤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 직원 영감’의 손자이자, ‘윤창식’의 첫째 아들임. • ‘윤 직원 영감’은 ‘윤중수’가 군수가 되길 바라고 있으나, ‘윤중수’는 방탕한 생활을 함.
	‘윤중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 직원 영감’의 손자이자, ‘윤창식’의 둘째 아들임. • 일본에서 유학 중이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다가 피검됨. • ‘윤 직원 영감’은 ‘윤중학’이 경찰서장이 되길 바라며 큰 기대를 걸고 총애하지만, 피검된 이후로 크게 실망함.

2. 등장인물의 대조적 형상화

부정적 인물	긍정적 인물
‘윤 직원 영감’, ‘윤창식’, ‘윤중수’ • 작품의 전면에서 등장함. •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됨.	‘윤중학’ • 작품 속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음. • 일제 강점기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긍정적 인물임.

3.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서술상의 특징	효과
•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남. • ‘-겠어요’, ‘-입니다’ 등과 같은 어투를 사용함. • 방언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함.	•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함. • 경어체 문장을 통해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함. • 방언, 비속어, 반어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격하하여 웃음을 유발함.

4. '진보'의 기능

-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음을 알림.
- 사건 전개에 극적인 반전을 유도하며, '윤 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을 예고함.
-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윤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5. 제목 '태평천하'의 의미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일반 민중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기
일제 강점기		'윤 직원 영감'	태평스럽고 평안한 시기 → 잘못된 역사의식을 반어적으로 풍자함.

6. 소제목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나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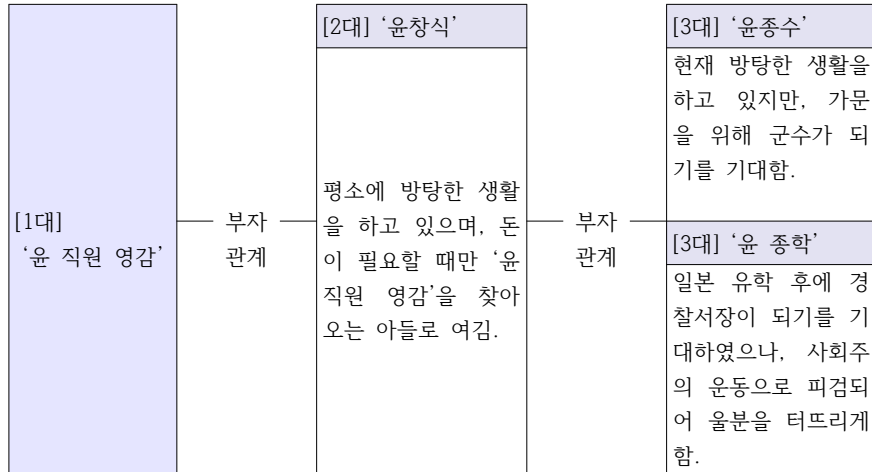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나라'
진시황 때 도사였던 노생이 바다에 갔다가 괴이한 지도를 발견하여 왕에게 바쳤는데, 그것에는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나라.”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진시황은 이를 두려워하여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아 오랑캐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였다.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부의 자손들로, 특히 '윤종학'임을 암시함.

“태평천하” 학습 활동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윤 직원 영감'이 다른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 보자.



2 당대의 현실에 대한 '윤 직원 영감'의 인식을 찾아보고, 이러한 인물을 표현한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자.

(1) '윤 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찾아보자.

현실의 모습	근거
태평천하 (태평스럽고 편안한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적패와 불한당 같은 수렁이 없음. • 일제의 치안 유지와 공평한 정책 실시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함. • 일제가 군사 징병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외세로부터 보호함.

(2) '윤 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과 작품 창작 당시의 현실 간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작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4-(3) 태평천하

‘윤 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과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현실 간의 차이
 이 작품이 발표된 1930년대 후반은 일제가 우리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였고,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약탈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은 심리적·물리적 고통은 매우 극심했다. 그런데 ‘윤 직원 영감’이 이런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가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며 친일파, 대지주로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	작가는 ‘윤 직원 영감’을 통해 당시 반민족적, 반사회적, 친일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풍자함과 동시에, 식민 치하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자 한 것이다.
--------	--

3 다음 글을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을 정리하고, 그 효과를 생각해 보자.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재가 부친 말 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냐고 화광이 충전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고요. 그런데…….

서술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남. • ‘-겠지요’, ‘-되니다’ 등과 같은 어투를 사용함. • 비속어를 사용하고, 상황을 방어적으로 표현함.
--------	--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함. • 경어체 문장을 통해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함. • 비속어, 방어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격하하여 웃음을 유발함.
----	---

“태평천하” 읽기 중 문제

1. ‘-겠지요’라는 어미의 반복에서 연상되는 전통적 갈래는 무엇인가?
 ‘-겠지요’와 같은 경어체는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2. ‘윤 직원 영감’이 ‘윤종수’와 ‘윤종학’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인가?
 ‘윤 직원 영감’은 가문의 발전을 위해 ‘윤종수’는 군수가 되고, ‘윤종학’은 경찰서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윤 주사’를 대하는 ‘윤 직원 영감’의 태도는 어떠한가?
 ‘윤 주사’의 방문을 의아해하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4. ‘진시황’과 ‘호해’에 해당하는 인물은 각각 누구인가?
 ‘진시황’에 ‘윤 직원 영감’이 해당하고, ‘호해’에 ‘윤 직원 영감’의 자손인 ‘윤종학’이 해당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㉑15.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 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A]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지요. 그런데…….

<중략>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이러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별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㉑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 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B]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년 참말이구나! 그러머년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뎡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감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어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지내가고요……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㉑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러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석을 헌담 말이여,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별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괘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 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히여서, 백년 지역을 살리라구 헐걸! 백년 지역 살리라구 헐 테여…… 오나, ㉑그놈을 삼천 석 거리는 직분(分財)하여 줄라구 히였더니, 오나, 그놈 삼천 석 거리를 툯툯 팔아서, 경찰서오다가 사회주의허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오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㉑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꾼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 놀 사회주의 부랑당 패에, 참석을 히여, 으응, 죽일 놈! 죽일 놈!”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개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권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둔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 둘 곳을 돌려 보게 합니다. ㉑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 채만식, 「태평천하」 -

화원고등학교 (대구)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등장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피하고 있다.
- ㉤ 서술자가 풍자적 태도를 통해 대상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화원고등학교 (대구)

2. [A] 부분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을 (예시)와 같이 정리하고, 그 효과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서술상 특징	(예시) 비속어, 반어적 표현을 사용함 (1.)
효과	(예시) 인물을 희화화하고 격하시키며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2.)

화원고등학교 (대구)

3. ㉢의 의미를 [B]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윤 직원 영감이 자신의 앞날을 짐작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 ㉡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한 것이 그의 자손임을 함축하고 있다.
- ㉢ 진시황을 운용규에, 황제의 아들 호해를 윤두섭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 윤 직원 영감의 기대대로 결국 가문의 영화가 이어질 것을 드러내고 있다.
- ㉤ 윤 직원 영감이 겪는 불행이 자손들에게 행운이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화원고등학교 (대구)

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 ㉠ : 인물이 믿고 사랑하는 손자의 신상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태도에서 나온 표현이다.
- ㉡ ㉡ : 사회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인물의 객관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다.
- ㉢ ㉢ : 손자에 대한 유산 상속을 포기하며 아쉬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 ㉣ : 인물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고려하여 반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표현이다.
- ㉤ ㉤ : 집안의 불행에 저항하고자 하는 식구들의 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서울의 대지주인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샷도 깔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윤 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한당을 막아 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마저 소박맞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 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15.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고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반방 고

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웅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 채리라……”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혼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 정신을 채리야 할 것이 니가 암만하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하여서, 너 치름 허랑허지도 않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머년 대학교를 졸업허잖나?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 나와서,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짜들어 나머지 그놈은 지가 목적인,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 목적인 경부가 되야 각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닝개루 너두 정신을 바짝 채리 각구서, 어서어서 군수가 되야야 않겠나?……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 놈은 게우 군 서기를 덩기구 있담! 남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허머년, 느덜 좋구 느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기 아등 아등 잔소리를 허던 것두 다 느덜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두 상관웁어! 알아듣냐?”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루 쓰겼어! 그놈이 어려서버텀두 워너니 나를 차별하게 따르구, 재주두 있구 착실허구, 커서두 내 말을 잘 듣구…… 내가 그놈 하나 년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울루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히피 쓰기는 허녕가 부더라마는, 그것두 허기사 네게다 대머는 안 쓰는 심이지. 사내자식이 너처럼 허랑허지만 말구서, 제 주대만 실행 양이면 돈을 좀 써두 괜찬언 법이여……. 그러서 지난달에도 오백 원 꼭 쓸 디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 주었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험험, 점잖은 발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덕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 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히 알은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동생 서울 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 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자리 꾸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자리 절과,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겼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멋하러 오냐? 돈 달러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꿇 짓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윤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목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옥 들 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가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 - 상 관계 - 로, 경시청에 피검!……이러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 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A]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년 참말이구나! 그러머년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흐릅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뎡다 경찰서에 쩌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걸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괘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앓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편지히여서, 백 년 지녔 살리라고 헐 티여……. 오냐, 그놈을 삼천 석거리의 직분히여 즐려구 히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 석거리를 툭툭 팔아서, 경찰서오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오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꿰어앉았던 윤 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꾼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 놀 사회주의 부랑당 패에, 참섭을 히여, 으응, 죽일 놈! 죽일 놈!”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개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권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둔 얼굴들을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 할 바를 잊고, 몸 돌 곳을 돌려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 채만식, 「태평천하(太平天下)」

대륜고등학교 (대구)

5. ㉠~㉢에 나타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작중 인물들의 천박한 별명들로 인물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다.
- ㉡ ㉢ :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가 경어체로 조롱하듯 드러났다는 점에서 판소리적 문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 ㉢ ㉣ : 인물의 언행을 반어적으로 평가하면서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다.
- ㉣ ㉤ :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며 흥분하는 인물의 태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 ㉥ : 가족들의 모습을 장수의 죽음을 대하는 군졸들의 참담한 모습에 비유하여 ‘윤 직원’의 몰락을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염상섭의 「삼대」 전체 줄거리

조씨 가문의 가장인 ‘조의관’은 개인의 이익 및 집안의 영달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물이다. 또한 가문의 위신을 내세우기 위해 남의 족보에 끼어들기도 하고 큰 돈을 들여 족보를 만들기도 한다. 아들 ‘상훈’은 걸은 기독교

교회의 장로지만 뒤로는 방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아버지 '조의관'의 가문 치장이나 족보, 사업에 반대하며 '조의관'의 재산을 눈독 들인다. 하지만 '조의관'은 '상훈'의 타락한 생활을 들먹이고 아들 '상훈'보다 '덕기'를 더욱 믿어 내심 재산을 '덕기'에게 물려주려 한다. 한편 손자 '덕기'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경험한다. 사회주의자인 친구 '병화'로부터 부르주아라는 편지를 곧잘 받기도 하는 사회주의의 심정적 동조자인 그는 '병화'의 소개로 가난한 하숙집 딸 '필순'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사랑을 느낀다. 조부의 석연치 않은 죽음 이후 '덕기'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 간다.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덕기는 경찰에 잡혔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후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고민한다.

- ① 윗글의 '윤종수'와 <보기>의 '조상훈'은 타락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에게 편지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② 윗글이 '윤 직원'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식이 결여된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면 <보기>는 '조덕기'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게 하는군.
- ③ 윗글의 '윤종학'과 <보기>의 '조덕기'가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통해 이 당시 새로운 세대에게 사회주의 운동이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윗글의 '윤 직원'과 <보기>의 '조의관'은 구시대적 인습에 사로잡힌 가부장적이며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군.
- ⑤ 윗글이나 <보기> 모두 시대적 상황을 삼대로 형성된 가족의 갈등과 운명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군.

대륜고등학교 (대구)

7. 윗글의 [A]와 <보기>를 읽고 <조건>에 따라 답을 서술하시오.

<보기>

진시황 때 도사였던 노승이 바다에 갔다가 괴이한 지도를 발견하여 왕에게 바쳤는데, 그것에는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진시황은 이를 두려워하여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아 오랑개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랑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였다.

<조건>

(1) [A]의 '진시황'이 의미하는 인물을 '~(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하시오.

(2) [A]의 '호해'가 의미하는 인물을 '~(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하시오.

(3) <보기>의 만리장성을 쌓는 행위와 연결되는 작품 속 인물의 행위를 '윤종수'와 '윤종학'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무학여자고등학교 (서울)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해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②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 나타난 부분이 있다.
- ③ 15장 제목은 윤 직원 집안의 몰락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암시한다.
- ④ 한 가족이 여러 대를 거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가족사 소설이다.
- ⑤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독자들이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작품에 몰입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무학여자고등학교 (서울)

9. 다음 중 ㉠과 유사한 수사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은 편지」

- ② 새는 울어 / 뜻을 만들지 않고, /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 매양 쏘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 ③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를 놓고 /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④ 부엌에서는 / 언제나 슬 괴는 냄새가 나요. / 한 여자의 / 젊음이 삭아 가는 냄새 / 한 여자의 설움이 / 찌개를 끓이고 / 한 여자의 애모가 / 간을 맞추는 냄새

- 문정희, 「작은 부엌의 노래」

- ⑤ 밤의 식료품 가게 / 케케묵은 먼지 속에 /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 북어들. /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 최승호, 「북어」

무학여자고등학교 (서울)

10. ㉠에 들어갈 적절한 관용적인 표현을 쓰시오.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1.⑤

4-(2) 이생규장전

1.④ 2.① 3.㉠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⑥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4.①
 5.② 6.④ 7.⑤ 8.④ 9.② 10.⑤ 11.⑤ 12.④ 13.(1) 두
 문불출 (2) ㉠의 이 서생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부귀공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14.⑤ 15.①
 16.④ 17.② 18.② 19.이 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
 으로 보여준다.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한다. 20.② 21.② 22.① 23.⑤ 24.① 25.⑤ 26.④
 27.② 28.⑤ 29.⑤ 30.① 31.③ 32.② 33.⑤ 34.① 35.
 ③ 36.④

4-(2) 시조 네 편

1.⑤ 2.③ 3.㉠ 세조의 단종 왕위 찬탈 사건 ⑥ 수양
 대군(세조) ⑦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을 받음 4.
 ⑤ 5.① 6.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다, 3,4(4.4)조의
 4음보가 나타난다. 7.① 8.⑤ 9.② 10.⑤ 11.시조는 작
 자층이 확대되면서 내용이 다양해지고 형식의 변화
 가 나타났다. 양반층이 주로 향유하던 초기에는 정형
 성이 두드러지는 평시조가 주로 창작되었고, 내용은
 충, 효, 절개, 강호한정 등의 유교적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후기로 가면서 작자층이 평민,
 여성, 기녀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시조가 길어지는 장
 형화가 나타났으며, 내용도 사랑, 삶의 애환, 사회 비
 판, 해학 등의 다양하고 진솔한 감정들을 노래하였
 다. 12.① 13.① 14.③ 15.㉠ '그 나쁜 녀나를 일'이다.
 ④ '임천한흥'이다. 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
 과 친화하며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16.⑤ 17.④
 18.③ 19.① 20.④ 21.② 22.③ 23.① 24.② 25.① 26.
 ③ 27.② 28.④ 29.① 30.③ 31.④ 32.④ 33.④ 34.⑤
 35.② 36.① 37.⑤ 38.④ 39.② 40.④ 41.표현 기법은
 '중의법'이며 '채미'의 뜻은 '고사리를 캐 먹음'과 '수
 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을 받음'이다. 42.③ 43.① 44.
 ④ 45.① 46.⑤

4-(2) 속미인곡

1.③ 2.④ 3.③ 4.④ 5.⑤ 6.② 7.③ 8.④ 9. (1)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로 임의 옷을 적실 수 있을 만큼 임에
 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 (2) 소극적인 낙월에 비
 해 적극적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의미이
 다. 10.④ 11.④ 12.② 13.③ 14.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며,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이다. 15.갑녀의 질문에 응
 하면서 하소연을 통해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
 하며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실제적 중심 역할을
 하는 화자이다. 16.⑤ 17.⑤ 18.① 19.③ 20.⑤ 21.(1)
 ㉠과 ㉡은 죽어서라도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
 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은 소극적 애정관을, ㉡
 은 적극적 애정관을 드러낸다. (2) ㉡은 임의 곁에
 오랜 시간, 더 가까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22.(1)
 (다)의 '두건'과 '구름'은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
 이 형상화 된 점에서 ㉠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2)
 [A] 관직을 잃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연군지정
 의 마음을 드러내는 충신연주지사 [B] <보기>의 화
 자는 독백체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다)의 화자
 는 대화체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3.⑤ 24.
 ④ 25.④ 26.㉠ 작가가 임금에게 버림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지은 작품이라, ㉠<속미인곡>은 이별을 자신
 의 탓으로 여기지만, <이소>는 임의 잘못을 지적하
 고 있다. 27.한자어 표현과 고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
 고 순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28.(1) (ㄱ)
 모침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ㄴ)출하리 식여디
 여 낙월이나 되야이서 (2) 임과 떨어져 '모침 촌 자
 리'에서 외롭게 지내는 화자는 죽어서 '낙월'이 되어
 멀리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
 낸 29.④ 30.① 31.④ 32.(1) ㉠'빈 비' ㉡사공이 없는
 '빈 비'는 임에게 갈 수 없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
 운 마음을 드러내어 (2) ㉠자연물을 통해서 죽어서라
 도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했다. ㉡'낙월'은
 멀리서 임을 비추므로 화자의 소극적 태도가 나타남
 다. '구촌비'는 임 가까이에서 내리며 화자의 슬픈 마
 음을 임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범나비'는 임이 자신인 줄을 모르더라도
 화자가 임을 좇겠다고 하므로 소극적 태도가 나타남
 다. 33.③ 34.③ 35.⑤ 36.③ 37.⑤ 38.② 39.④ 40.④
 41.② 42.③ 43.① 44.(가)는 '차라리 죽서 지는 달이
 나 되어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이다. 45.④ 46.② 47.② 48.③ 49.⑤ 50.④ 51.⑤ 52.
 (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
 하지만, (라)의 화자는 임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라
 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53.③ 54.④ 55.①

4-(2) 임경업전

1.② 2.② 3.⑤ 4.① 5.③ 6.⑤ 7.'임경업전'과 같은 군

담 소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월함을 보여 주고, 실제로는 패배한 전쟁에 대해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어 치욕을 씻고자 한 것이다. 8.② 9.③ 10.④ 11.냉소적 표현과 풍자적 표현으로 인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2.⑤ 13.④ 14.⑤ 15.① 16.② 17.① 18.③ 19.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리사욕만 일삼던 지배층에 대해 분노하 20.④ 21.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22.③ 23.⑤ 24.② 25.⑤ 26.② 27.④ 28.③ 29.② 30.① 31.① 32.④ 33.③ 34.⑤ 35.④ 36.① 37.③ 38.③

4-(3) 산태지

1.⑤ 2.⑤ 3.④ 4.④ 5.㉠ 최원봉의 친아버지 ㉡ 최원봉 ㉢ 최 주사 부부 ㉣ 최영순 ㉤ 차혁 6.④ 7.② 8.① 9.⑤ 10.② 11.③ 12.① 13. (1) 꿈속 (2) 지체를 ~ 맞겠습니다. 14.② 15.① 16.아버지는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했다 죽은 인물로 나라와 백성과 사회를 위해 죽었을 정도로 실천적이고 강한 역사의식을 가졌지만 원봉은 역사의식을 계승해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집안에 갇힌 산태지처럼 현실적 제약에 불만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 17.③ 18.③ 19.② 20.④ 21.②

4-(3) 쉽게 씌어진 시

1.④ 2.암울한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3.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자신의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② 5.① 6.(1) 조국의 광복, (2)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3) 내면적 자아, (4) 아름다운 혼 7.② 8.④ 9.② 10.⑤ 11.③ 12.⑤ 13.① 14.④ 15.③ 16.(1) ㉠ 현실적 자아이다. ㉡ 내면적 자아이다. (2) 최초의 약수 17.⑤ 18.① 19.④ 20.① 21.⑤ 22.④ 23.⑤ 24.③ 25.① 26.③ 27.현재는 일제 강점기인 '어둠'의 암울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시대처럼 올 아침'인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짐한다는 의미이다. 28.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를 뜻한다 29.① 30.(가)의 등불은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희망을, (나)의 등불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뜻한다 31.④ 32.④ 33.시적화자의 신분은 일본에서 공

부 중인 유학생이다. 화자의 삶의 태도는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34.⑤ 35.① 36.⑤ 37.부끄러운 일이다 38.⑤ 39.② 40.④ 41.② 42.① 43.⑤ 44.③ 45.① 46.① 47.④ 48.⑤ 49.⑤ 50.② 51.(1) ㉠: 내면적 자아 ㉡: 현실적 자아 (2) 내면적 자아인 ㉠과 현실적 자아인 ㉡이 약수를 하는 것은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의미한다. 52.① 53.⑤ 54.④ 55.⑤ 56.④ 57.④ 58.① 59.④ 60.⑤

4-(3) 태평천하

1.④ 2.(1) 판소리적 문제 (2) 유직원을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인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3.② 4.④ 5.④ 6.① 7.'진시황'이 의미하는 인물은 윤 직원 영감이다. '호해'가 의미하는 인물은 윤종학이다. <보기>에서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같이 윤 직원 영감은 윤종수와 윤종학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집안을 유지해줄 것을 바랬다 8.⑤ 9.① 10.물을 친 듯이 11.⑤ 12.② 13.(1) 태평천하 (2)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이 소설에서 작가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14.② 15.④ 16.⑤ 17.⑤ 18.③ 19.③ 20.③ 21.① 22.태평천하 23.④ 24.(1) 망진자는 호야나라 (2) 경찰서장, 군수 (3) 전보 25.④ 26.② 27.④ 28.② 29.반어적 표현으로 일제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로 인식하는 윤 직원 영감의 뼈똥어진 역사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30.②④ 31.⑤ 32.(1) ㉠~㉣은 비속어, 반어적 표현과 판소리적 문체 등을 통해 중심인물을 희화화하며 풍자, 비판하고 있다. (2) 조롱하는 어투를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33.② 34.② 35.② 36.작가는 윤 직원 영감을 통해 당시 반민족적, 반사회적, 친일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풍자함과 동시에 식민 치하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37.세상 망쳐 놀 사회주의 부랑당

4-(4) 광장

1.② 2.② 3.④ 4.④ 5.③ 6.남한과 북한 어디에서도 진정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④ 8.⑤ 9.③ 10.④ 11.① 12.② 13.㉠ 부채 ㉡ 사복자리 ㉢ 개인적 삶의 공간 ㉣ 개인의 사회적 삶의 공간 14.③ 15.② 16.⑤ 17.② 18.④ 19.② 20.⑤ 21.(1)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이 지닌 과도기적 모습 (2)

㉔ 푸른 광장 ㉕ 펼쳐진 부채 ㉖ 사복 자리

4-(4)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㉕ 2.㉔ 3.㉑ 4.㉓ 5.㉗ 흰 새 떼들 ㉘ 우리 ㉙ 날아간다 ㉚ 주저앉는다 ㉛ 이 세상 밖 ㉜ 자기 자리 6. ㉑ 7.음성상징어는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음성상징어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음성상징어는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8.㉑ 9.㉑ 10.㉓ 11.㉒ 12.㉔ 13.㉒ 14.㉓ 15.㉒ 16.(1) '일제히 일어나', '일렬이열 삼렬 횡대' (2)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였다. 17. ㉕ 18.㉓ 19.㉓ 20.㉑

4-(4)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1.㉒ 2.㉓ 3.㉕ 4.㉑ 5.㉑ 6. 1) 저항 2) 참여 3) 가족사

5-(1) 흐르는 북

1.㉓ 2.㉒ 3.㉔ 4.㉒ 5.㉔ 6.㉓ 7. (1) 민 노인 (2) 북 8.㉔ 9.㉔ 10.㉒ 11.㉔ 12.㉔ 13.㉕ 14.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한다. 15.㉒ 16.㉔ 17.㉑ 18.㉕ 19.㉕ 20.(1) ㉗ 민 노인 ㉘ 민성규 ㉙ 민 노인 (2) 오히려~아니겠습니까? 21.㉑ 22.㉒

- 끝 -

3-(3) 춘향전

1.㉔

ㄴ: 서민의 신분 상승 욕구를 담아냄. ㄹ: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 아닌, 개인과 사회적 가치관과의 갈등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ㄱ.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2.㉕

▶자신의 권위가 아닌, 법도에 맞지 않음을 들어 상대의 말을 부정함.

▶넣어둬, 패턴 공략◀

작품 속에 반영된 종교(철학) 관련 어휘 맥락

- 유교적: 충성, 효도, 학문, 수양, 임금, 우정...
- 불교적: 환생, 인연, 이별, 자비, 선행...
- 도교적: 자연친화, 신선사상, 옥황상제, 초현실적...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3.㉖

ㄱ.춘향전의 근원 설화는 신원설화, 암행어사설화, 관탈민녀설화, 열녀설화 등이고 옥중화는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소설임. ㄴ. 춘향은 전형성에서 벗어난 인물이고 전기적 요소는 없음. ㄷ. 꿈과 현실의 교차는 없음. ㄹ: 대화 중심으로 장면 전환이 빠른 건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신성성 vs 전기적

- ㄱ. 신성성: 인간의 능력, 범위를 초월한 신적인 특성
- ㄴ. 전기적: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특성

<신성성>이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전기적> 특성이 <신성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2. 문학에서의 '입체적~' 총정리

- ㄱ. 입체적 서술(입체감 부여): 한 대상으로 둘 이상의 각도 (관점, 입장, 시간, 공간, 감각)에서 바라보는 것.
- ㄴ. 입체적 구성: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사건의 분석 등으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현대 소설, 특히 심리 소설에서 많이 나타남)
- ㄷ. 입체적 인물: 성격이 큰 틀이 변하는 인물.

3. 구체적 서술 vs 요약적 서술 (★★★)

- ㄱ.구체적 서술: 인물의 대화, 상황 및 사건 등의 묘사
- ㄴ.요약적 서술: 인물의 내면,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 (서술자 직접 전달)

요약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른 반면 구체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 이야기의 흐름이 지연된다.

4.㉗

▶◎ : 정절과 지조가 아닌, 법도를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태도에 남자 주인공이 흡족해함을 알 수 있다.

7.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통해 알 수 있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문학 배경의 종류 (★)

- ㄱ. 공간적: 언어, 행동, 심리 표출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 ㄴ. 시간적: 날짜, 요일, 계절, 년도 등
- ㄷ. 심리적: 우울함, 불안함, 기다림, 간절함 등 →해당 심리가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냄.

8.㉙

▶◎: 춘향 어머니는 양반을 통한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기에 순사한 사랑의 가치를 긍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10.㉚